



언론중재위원회, 통일교육원 및 서울대학교 로스쿨과 MOU 체결

●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지난 1월 1일 교육본부를 확대·재편한 데 이어, 2월 들어 두차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사업 확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 위원회는 2월 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통일교육원(원장 전경만)과 양 기관의 교육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언론중재위원회 권성 위원장은 “위원회는 교육을 통해 각종 분쟁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방법인 ADR을 사회 다양한 분야에 소개하고 그 장점을 전파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통일교육원의 오랜 교육경험과 노하우가 위원회 ADR 교육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통일교육원 전경만 원장은 “언론인 대상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교육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저변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 위원회는 2월 25일 오후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원장 정상조)과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실무수습 교육제공 및 학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권성 위원장은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법학전문대학원생은 향후 ADR제도를 이끌어갈 가장 적합한 인재”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상조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로스쿨 학생들이 더욱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실무학습의 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언론중재제도 관련 실무수습 및 ADR전문가과정을 운영하고 양 기관 공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법률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왼쪽부터 언론중재위원회 오광건 사무총장, 권성 위원장, 통일교육원 전경만 원장, 이무일 교수부장



▲ 왼쪽부터 언론중재위원회 오광건 사무총장, 권성 위원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상조 원장, 조홍식 교무부원장